

Q. 2026년 가이던스

A. 2026년에는 성장 잠재력 확보 및 생산적 금융 영향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 2026년 한 번 정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가정 하에 마진이 전년보다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시장 의견도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만약 시장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전년수준의 NIM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이자이익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증권사가 비이자이익에 연간으로 기여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예상합니다.

판관비는 IT투자 및 보험사 편입 효과, 증권사 인원 확충 등 일부 비용 증가 요소가 있겠으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 그룹 CIR 40%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경상 대손비용률은 40bp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대손비용을 약 20%정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Q. 금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재된 배당정책(매년 DPS 10% 이상 확대) 2026년 적용 여부

A. DPS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배당정책은 2026년에도 적용되며 향후에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Q. 분기·결산배당금 비중 변동 가능성

A. 당사의 배당정책은 1, 2, 3분기는 균등 배당하고 결산배당은 자본비율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향후 보통주 자본비율이 13%를 초과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1, 2, 3, 4분기 균등 배당을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는 기존의 배당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Q. 비과세배당 자원 증가 배경

A.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약 3조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으며, 그보다 4년 전인 2021년에도 약 4조원의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자사주매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7천억정도 사용하였고 3.3조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재원을 비과세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1년 전입 4조원 중 잔여 3.3조원을 비과세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총 비과세배당재원은 6.3조원이며, 2025년 결산배당액 지급을 감안하면 당사의 잔여 비과세배당재원은 약 5.7조원입니다.

Q. 2025년 4분기 영업외손실 세부 요인

A. 배드뱅크 관련 500억원, LTV과징금 520억원의 영업외비용이 발생했습니다.

Q. 우리투자증권 증자 계획 및 유상증자의 보통주 자본비율 영향

A. 중장기적으로 초대형 IB 종투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단계적인 유상증자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자의 규모 및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라이선스 지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행위 자체로 인한 그룹의 보통주 자본비율 영향은 없으며, 타 경쟁사 대비 출자 여력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에서 IB 또는 S&T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RWA가 증가할 수 있으나, 우리투자증권이 증가하는 RWA를 상쇄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룹의 보통주 자본비율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증자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의 탑라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룹의 비이자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Q. 보통주 자본비율 13% 달성 예상 시점 및 2026년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

A. 2025년말 보통주 자본비율은 12.9%로, 13%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중에는 1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고 유휴 부동산 매각 등 자체적인 개선 계획을 통해 보통주 자본비율 13% 달성 및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2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2월부터 6월초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 말에 소각까지 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 보통주 자본비율 13%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2026년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기본자본비율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증자 가능성

A. 기본자본비율 제도 도입 시기가 2027년부터이며 정부에서도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그룹은 2026년부터 보험사의 K-ICS비율 뿐만 아니라 기본자본비율도 관리하고 있으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모두 규제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추가적인 유예 조치 신청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자료는 2026년 2월 6일 우리금융그룹(이하 회사) 실적발표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 및 내용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수치이며, 외부 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조기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회계감사를 마친 자료와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별도 공지 없이 외부 감사인의 최종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는 일정한 장래예측진술(forward looking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예측진술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 등을 의미하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가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장래예측진술에 따라 예정된 결과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미래 상황은 해당 장래예측진술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바와 중대하게 다를 수 있고, 향후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장래예측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발생한다고 하여 장래예측진술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